

#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배유리,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Yu-Ri Bae(yuri6208@naver.com), Seoung-Yun Sung(madisonair@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23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r=-.51, p<.01$ ) 있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r=.70,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r=-.39, p<.01$ ) 있었다. 사회불안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r=-.50,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r=.63, p<.01$ ) 있었으며 사회불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r=-.51, p<.01$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졌으며( $\beta=.41, p<.001$ ) 사회불안은 학교생활적응에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 p<.001$ ).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 특히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내현적 자기애 | 학교생활적응 | 사회불안 | 학업적 자기효능감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e subjects were 423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aptation( $r=-.51, p<.01$ ). Covert narcissism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r=.70, p<.01$ ) but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r=-.39, p<.01$ ). Social anxie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aptation( $r=-.50, p<.01$ ), academic self-effic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aptation( $r=.63, p<.01$ ), and social anxie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r=-.51, p<.01$ ).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self-efficacy ha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life adaptation( $\beta=.41, p<.001$ ), and social anxiety has no mediating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beta=-.05, p<.001$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adolescents with covert narcissism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chool life, increasing academic self-efficacy, especially self-control efficacy and self-confidence, may be helpful to improve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 keyword : | Covert Narcissism | School Life Adaptation | Social Anxiety | Academic Self-efficacy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적응이 요구된다. 적응은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업이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적응력을 필요로 하며 삶에서 전반적인 재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가족 외의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외의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도를 대변하고 나아가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1].

학교생활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가며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적응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에(Narcissism)가 주목받고 있는데, 자기에적 성격은 양가적인 자존감과 병리적인 웅대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가지며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순적인 측면을 지닌다. 자기에적 성격은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보편적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밖으로 표출하여 과시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와, 무의식적 웅대성을 억압해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한 성격을 보이는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로 구분된다[2].

내현적 자기에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3-5],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이 지닌 과도한 자의식과 민감성, 불명확한 자기개념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학업과 진로 목표 설정에의 혼란 등[6-8]이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에는 단일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요하며,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치료가 어렵다[9].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 요인을 찾아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의 많은 특징들은 사회불안 성향과 공통점을 보인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현상으로, 수줍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극도로 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핵심 증상으로 한다[10]. 자기에적 성격 내에는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거대자기 환상, 특권 의식 및 양가적인 자존감과 같은 역기능적 요인이 있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여러 가지 부적응 및 병리와 관련될 수 있는 민감함과 취약함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1].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경우 자기 가치감의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상황을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사회적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9]. 실제로 자기에와 사회불안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이 내현적 자기에와는 정적상관을, 외현적 자기에와는 부적상관을 보이며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의 한 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11][12] 자기에적 성격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높은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의 회피, 부적절한 대인관계, 사회적 과제 수행의 결손과 사회적 유능감의 결핍,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및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돼[10][13][14]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이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 성취가 학교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 중 하나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거나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16].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 때문에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17].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학업성취도나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18],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학습동기 및 문제해결능력 또한 낮다는 연구 결과[19]를 통해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내현적 자기와 학교생활적응이 어떤 매개변인을 거쳐 서로 관련을 가지는지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밝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와 학교생활적응, 사회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내현적 자기에

자기에는 외현적 자기와 내현적 자기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경탄을 요구하고 응대성을 전시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고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단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지만 내면의 핵심에는 거대자기 환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존감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고양 전략이 덜 발달되어 있어 타인들의 평가와 반응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20]. 또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존감의 위협이나 상처받음에 주의를 기울여 현실의 의미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치심과 굴욕감을 쉽게 느끼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9]. 또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일치도가 낮고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해 보이며 모호한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보고되고 있다[6-8].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보다 대인관계와 수행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2. 사회불안

사회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 또는 수행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심리적 장애로,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대인간 평가가 존재하거나 예상될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안과는 차이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여 수행을 향상시키는 등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사회불안은 일상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회활동과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을 야기해 적응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10].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로 점차 성숙하여 자신의 의

모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전보다 학급에서 질문에 대답하거나 발표할 기회가 늘어나며 자신의 수행이 평가받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기중심성이 발달하며 대인관계 또한 점차 부모로부터 또래관계나 사회적 관계로 그 중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도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13][14].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인 적응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Bandura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특수한 수행의 성취에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21].

자기효능감은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려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의 양과 지속성이 증가하게 되고,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향후 발생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도에 쉽게 포기하며 스트레스, 우울, 학습된 무기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6].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과생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나타내는 기대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지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2].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과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15]. 이처럼 청소년이 지닌 학업 능력에 대한 신념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요소들의 총체를 뜻하며,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에서의 학업적 적응과 사회·정서적 적응,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학교 내 요인들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교사 및 또래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학교생활적응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23].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종교 등의 개인 요인,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정 월수입, 동거 가족 수,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의 가정 요인,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등의 학교 요인, 지역구조, 지역복지, 지역분위기, 국가적 배경 등의 지역사회 요인이 있다[24][25]. 자기효능감, 분노 표현 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들어 이루어져 왔으며[3][8][15] 구조적 요인 연구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인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I시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표집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응답 내용이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였다. 연구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연구 설명과 함께 학생 및 보호자의 연구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이 기재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후 학생과 보호자가 연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80, 변수는 총 14개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37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가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약 30% 탈락률을 고려하여 50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 423명 중 중학생이 314명으로 전체 인원의 74.2%였고 그중 남학생이 217명(69.1%), 여학생이 97명(30.9%)이었다. 고등학생은 109명으로 전체 인원 중 25.8%이었다. 고등학생 중 여학생은 59명(54.1%), 남학생은 50명(45.9%)이었다.

## 2. 측정 도구

### 2.1 내현적 자기애 척도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7].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총 45문항이다. 각각의 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목표 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구성된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2.2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과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사회불안은 La 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2008)가 번안하

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26]. 각각의 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으로 구성되며 총 18문항이다. 이 척도를 사용한 양윤란 등(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경자, 문혜신(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수행상황 불안 10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14].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었다.

###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2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학습자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관련 상황에서의 효능기대 수준을 측정한다.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 2.4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재천(2000)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23]. 이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체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재천(2000)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델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macro를 사용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PSS macro가 제공하는 부트스트랩(Bootstrap) 신뢰구간 가설검정 절차를 통해 전체 매개효과와 매개변인 각각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 분석

###### 1.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사회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08	.65	-.07	-.06
착취/자기중심성	2.27	.64	.43	-.20
목표불안정	2.71	.92	.02	-.81
과민/취약성	2.63	.75	.11	-.51
소심/자신감 부족	2.89	.77	.02	-.37
대인관계상향 불안	2.63	.79	.10	-.63
수행상황 불안	2.37	.92	.40	-.66
과제난이도 선호	2.94	.83	-.04	-.16
자기조절 효능감	3.18	.71	.25	.21
자신감	3.56	.86	-.29	-.35
교사관계	3.34	.77	.03	-.18
교우관계	3.60	.64	-.44	.22
학교수업	3.36	.67	.11	.24
학교규칙	3.50	.54	.13	-.07

###### 1.2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를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내

현적 자기에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51, p<.01$ ).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착취/자기중심성 순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r=-.50, p<.01$ ;  $r=-.44, p<.01$ ;  $r=-.43, p<.01$ ;  $r=-.40, p<.01$ )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r=.70, p<.01$ )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소심/자신감 부족과 과민/취약성 요인이 사회불안과 높은 정적상관을 갖는 것( $r=.79, p<.01$ ;  $r=.66, p<.01$ )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39, p<.01$ ).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목표불안정, 소심/자신감 부족, 과민/취약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r=-.40, p<.01$ ;  $r=-.39, p<.01$ ;  $r=-.35, p<.01$ ),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r=-.50, p<.01$ ), 특히 학교수업과 교우관계와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r=-.54, p<.01$ ;  $r=-.49,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r=.63,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r=.59, p<.01$ ;  $r=.53, p<.01$ ). 사회불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r=-.51,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자신감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r=-.74,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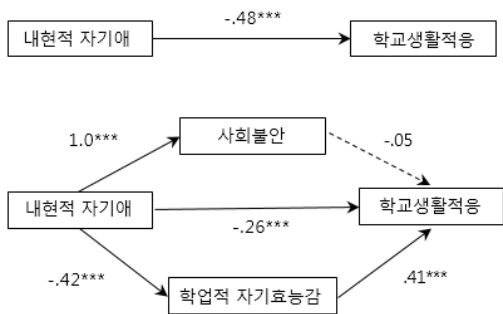
##### 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델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몇몇 변인들에서 성별과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학교유형을 더미변수화하여 공변량으로 포함시킨 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다음 [그림 1]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

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3	3-1	3-2	3-3	4	4-1	4-2	4-3	4-4	
1. 내현적 자기애																			
1-1.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62**																		
1-2.착취/자기중심성	.68**	.45**																	
1-3.목표불안정	.77**	.23**	.39**																
1-4.과민/취약성	.87**	.52**	.48**	.58**															
1-5.소심/자신감부족	.71**	.20**	.28**	.45**	.59**														
2. 사회불안	.70**	.26**	.35**	.47**	.66**	.79**													
2-1.대인관계상황 불안	.75**	.36**	.37**	.49**	.73**	.76**	.91**												
2-2.수행상황 불안	.56**	.13**	.29**	.38**	.51**	.69**	.93**	.69**											
3. 학업적 자기효능감	-.39**	-.04	-.21**	-.40**	-.35**	-.39**	-.51**	-.42**	-.51**										
3-1.과제난이도 선호	-.13**	-.02	-.11**	-.17**	-.08	-.08	-.12**	-.10**	-.12**	.78**									
3-2.자기조절 효능감	-.23**	.11**	-.08	-.32**	-.17**	-.28**	-.33**	-.27**	-.33**	.78**	.43**								
3-3.자신감	-.56**	-.17**	-.31**	-.42**	-.56**	-.55**	-.74**	-.60**	-.74**	.66**	.23**	.32**							
4. 학교생활적응	-.51**	-.04	-.41**	-.50**	-.44**	-.43**	-.50**	-.45**	-.48**	.63**	.30**	.59**	.53**						
4-1.교사관계	-.43**	-.03	-.35**	-.45**	-.33**	-.35**	-.37**	-.32**	-.35**	.42**	.20**	.40**	.36**	.83**					
4-2.교우관계	-.45**	-.01	-.29**	-.39**	-.43**	-.46**	-.49**	-.49**	-.42**	.34**	.09	.36**	.44**	.75**	.51**				
4-3.학교수업	-.45**	-.03	-.29**	-.43**	-.39**	-.44**	-.54**	-.45**	-.54**	.75**	.44**	.65**	.60**	.83**	.58**	.50**			
4-4.학교규칙	-.24**	-.06	-.32**	-.26**	-.19**	-.03	-.14**	-.11**	-.14**	.39**	.23**	.43**	.22**	.68**	.41**	.30**	.51**		

\*\*  $p < .01$ , \*  $p < .05$



\*\*\*  $p < .001$

그림 1.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모델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가 유의하였고( $\beta = -.48, p < .001$ ). 매개변인을 고려할 때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다( $\beta = -.26, p < .001$ ).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으며( $\beta = 1.0, p < .001$ ),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2, p < .001$ ).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41, p < .001$ ), 사회불안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

표 3.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매개경로	비표준화계수		SE	95% 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매개효과 크기	Boot		하한	상한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 학교생활적응	-.05	-.05	.04	-.12	.03
내현적 자기애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17*	-.18*	.03	-.23	-.12
전체	-.22*	-.22*	.04	-.30	-.14

\*  $p < .05$

하기 위해 95%의 신뢰수준을 사용하였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부트스트랩은 1,000번 실시하였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30, -.1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12, .03]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포함하는 간접경로의 효과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23, -.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고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사회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다만 하위 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에적 특성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및 권력욕구, 자기찬미,

우월감 등 외향적이고 과시적인 측면은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 성취욕구와도 연결되어 학교 부적응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4][5].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는 사회불안과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평가나 비난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반응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수행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을 자주 예상하게 된다[9]. 이런 경향성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상황과 수행 상황에서 자주 철수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여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가 높을수록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7].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안전한 과제만을 반복해 선택하는 것으로는 향상되지 않으며 새롭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데, 내현적 자기에 청소년들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쉬운 과제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이 향상될 기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낮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행동 및 사고가 증가할수록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발표나 수행평가, 질의응답 등이 요구되는 학교 수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노력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 또한 높아지며 학업에 대한 결과를 타인이나 능력, 운에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노력에 귀인함으로써 좋은 학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27]와도 관련이 있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동기가 높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불안이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28]와 유사한 결과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이 강하고, 이러한 자신감이 평가적 상황에서 불안을 적게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Preacher와 Hayes(2008)의 다중매개모델 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불안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반면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사회불안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매개변인으로 고려되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다른 변인을 매개변인으

로 함께 설정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을 밝힌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다른 개인 요인들보다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 적응과 더 두드러진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15][29]. 또한 우리나라 13~19세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중 '성적과 적성을 포함한 공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9.5%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민인 '외모·건강(18%)', '직업(11.7%)'등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30] 또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며, 학업과 관련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다른 요인보다도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성격 요인이나 인지적·심리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능력과 적응도 등에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명료성과 통제력이 있다면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13][16][31]를 참고할 때 부적응적 정서 수준보다도 이를 다루는 개인의 내적 역량이나 자원의 유무가 적응 수준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문제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세히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청소년이라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특히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개입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회에 걸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정되었고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표본 수에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이 좀 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구변인별 표본이 고르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배유리(2016)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참 고 문 헌

- [1] 최지원, 박영숙, “학교 부적응청소년의 MMPI-A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pp.265-284, 2011.
- [2]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4, pp.590-597, 1991.
- [3] 김동민,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내현적 자기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 조소희,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와 편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 김종운, 김지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041-1054, 2014.
- [6] 이상미, *내현적 자기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강선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8] 김제영, *내현적 자기와 분노 표현방식이 또래 괴롭힘 경험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9] 권은미, *내현적 자기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강예모, 김정규,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제12권, 제3호, pp.331-348, 2012.
- [11] 한혜림, *자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2] 이인숙,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신재은,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4] 오경자, 문혜신,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2호, pp.429-443, 2002.
- [15] 노원재, *청소년의 학업적 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6] 박영미, *아동의 모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7] 장하나, *내현적 자기에 특성과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8] 최인희,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9]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 [20] S. Akhtar and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pp.12-20, 1982.

[2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ompany, 1997.

[22]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제39권, 제1호, pp.95-123, 2001.

[23] 전재천,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4] 이원익, 김동일,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Wee school, 공립위탁형 대안 학교 및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89-118, 2009.

[25] 정유진,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6] 양운란, 양재원, 오경자,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불안과 우울 증상간의 시간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1호, pp.35-50, 2008.

[27] 유석주,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의 귀인 성향과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8] 나동진, 신미경, 조인근, “학업 성취의 사회적 목표와 학업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학업불안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제6권, 제1호, pp.131-152, 2008.

[29] 김다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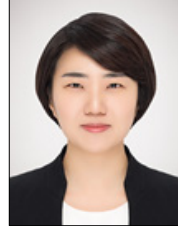
[30] <http://kostat.go.kr>, 2015. 10. 30.

[31] 오수남,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통제력 및 정서 조절이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저 자 소 개

배 유 리(Yu-Ri Bae)

정회원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문학사)
- 2016년 2월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상담학석사)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성 승 연(Seoung-Yun Sung)

정회원



- 198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199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상담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상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동양상담, 상담자 철학 및 상담윤리